



미국 가계 및 정부부채 증가, 경기회복 어려움 가중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가계 및 정부의 부채 증가가 경기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, 부채문제가 경제성장, 정부의 추가 시장개입,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.

- 모기지를 제외한 가계부채는 지난 10년간 37% 이상 증가했으며, 2011년 4월 말 현재 2008년 9월 정점을 기록했던 2조 6천억 달러에 비해 6% 감소한 2조 4천억 달러 수준임.
- 가계의 모기지 부채는 9조 9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23%가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남.
- IMF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07년 62%에 불과했으나 2011년 말에는 100%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, 미 의회 예산처 또한 경제규모 대비 정부부채가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.
- Strategas Research는 1980~1990년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했던 것이 신용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으로 보았으나, 현재와 같이 부채가 증가한 상황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신용시장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경제 변동성도 커질 수 있음을 주장함.

■ 연준이 경기회복을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나 가계 및 정부의 부채를 감축하는데는 효과가 없었으며,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의 침체는 부채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.

- 연준이 경기회복을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, 그 효과는 단기적인 금융시장 부양에 그쳤을 뿐 가계 및 정부의 부채 감축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, 오히려 줄어든 차입비용으로 가계와 정부가 부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결과만 초래함.
-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출감소 뿐만 아니라 소득증가도 필요하지만, 현재 임금상승이 더디고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, 소비자 구매력 감소로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부채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음.

(Wall Street Journal 등, 6/27)